

消風散加味方으로 호전된 妊娠身痒 환자 치험 2례

이승아¹ · 유동열¹ *

Two Cases Report of the Dermatoses Gravidum Treated with Sopungsan-gamibang

Lee Seung-Ah¹ · Yoo Dong-Youl¹ *

¹Dept. of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Purpose: This paper is aim to report the effects of Sopungsan-gamibang(消風散加味方) on the Dermatoses Gravidum.

Methods: Two women who had been suffering from itching, plague, erythema during pregnancy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agnosed Dermatoses Gravidum. They received oriental treatment such as herbal medicine. we gave them Sopungsan-gamibang 3 times. During the treatments, we requested them to visit hospital twice a week. If they could not come to hospital, we called them to take follow-up.

Conclusion: This clinical cases indicate that Sopungsan-gamibang is effective in treatment of the Dermatoses Gravidum and can prevent chronic progress and relapse of symptoms. More clinical data and studies are requested for the treatment of Dermatoses Gravidum.

Key Words: Dermatoses Gravidum, Sopungsan-gamibang, oriental treatment, herbal medicine.

I. 序 論

임신부의 신체는 임신기간 동안 내분비, 대사, 면역 등 여러 방면으로 증대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임신기간에 발생하여 임신과 관계가 있는 질병을 ‘妊娠病’, 혹은 ‘胎前病’이라고 한다¹⁾.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妊娠病에는 妊娠惡阻, 妊

娠腹痛, 胎漏, 胎動不安, 子宮外妊娠, 妊娠心煩, 妊娠腫脹, 妊娠眩暈, 妊娠咳嗽, 妊娠喘息, 妊娠失音, 妊娠小便淋痛, 妊娠小便不通, 妊娠身痒, 妊娠腰痛, 胞狀奇胎, 妊娠大便難 등이 있다¹⁾.

이 시기에는 피부의 변화도 흔히 나타나는데 대부분 생리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병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妊娠身痒이란 임신 중에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임신과 관련된 피부 소양증으로 태아에게 손상이 없는 경우로 정의 한다¹⁾.

* 교신저자 : 유동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E-mail : ydy1010@dju.kr
접수일 : 2010년 12월 20일 수정일 : 2011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1년2월8일

현대 의학에서는 이를 임신성 피부증 (dermatoses gravidarum)이라 하며 임신으로 인한 내분비 실조를 주원인으로 보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고용량 투여나 병합요법²⁾, 항히스타민 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크림³⁾ 등을 사용하여 치료 하지만, 종종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치료를 삼가고 자연 관해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⁴⁾.

한의학에서도 임신 중 피부질환의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치료와 다르지 않지만 임신 부에 있어서 약물 사용과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서 치료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저자는 임신 중 피부소양으로 洋方에서 임신성 피부증으로 진단 받고 내원한 임신신양 환자 2례를 消風散加味方으로 치료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治療方法

1. 研究對象

本院에 내원한 환자 중 임신 중 발생한 소양증으로 洋方에서 피부소양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고 호전이 없었거나 치료를 거절 당한 환자에게 消風散加味方을 투여한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治療方法

1) 消風散

當歸, 生地黃, 防風, 蟬蛻, 知母, 苦蔘, 胡麻, 荊芥, 蒼朮, 牛蒡子, 石膏 各 1錢

甘草 木通 各 五分

2) 服用方法

2명 모두 消風散加味方을 하루 2첩 3회로 나누어서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였다.

3) 한약 투여 이외에 외용약이나 기타 침구치료 및 기타 한방치료는 하지 않았다.

3. 治療效果의 測定

治療效果의 測定은 증상의 정도를 +로 표시하였으며 처음의 정도를 ++++로 보고 감소나 증

가 정도를 환자에게 평가 하도록 하였다. 한약 복용기간동안 최소 1주에 2번은 내원하도록 요청하였고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하였다.

III. 證 例

1. 證例 1

1) 환 자: 김현O, 여자, 1977년 1월 15일생, 기혼

2) 주소증: 심한 소양증, 발진

3) 산과력: 1-0-1-1

4) 증상

임신 8개월에 발생한 심한 소양감. 첫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다니던 병원에서 임신성 피부증 진단. 증상이 다 낫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할 수 없다 하여 피부과를 갔으나 치료를 거부당하여 내원.

저녁에서 새벽까지 제일 가렵고 긁으면 붉게 자국이 생기면서 번짐. 오전에는 좀 시원해서 그런지 소양감이 덜함. 처음에는 배, 가슴에서 시작하여 점점 등과 팔까지 번짐.

5) 진단

(1) 피부색, 체격: 면색은 노란편. 체격은 많이 마른 편. 내원시 키 168cm, 체중 54kg

(2) 消化: 잘됨.

(3) 食慾: 좋음.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만 먹으면 여드름이 잘나서 잘 안 먹음

(4) 大便: 예전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 지금은 정상

(5) 小便: 정상

(6) 口渴: 口乾, 가끔 입안이 건조함.

(7) 寒熱: 추위를 많이 탐. 에어컨 바람을 쐬면 두통이 생김

(8) 汗: 거의 안 흘림

(9) 舌診: 치흔이 심함. 중심부 백태. 약간 건조. 설침 흥

(10) 睡眠: 별무이상

6) 투여처방

消風散 加 金銀花 1錢, 芍藥 1錢, 黃芩 1錢, 蘇葉 1錢 薄荷 0.5錢

7) 치료경과

기간	6/28	7/6	7/12	7/19	7/26	8/3	8/9
韓藥 投與	투여		투여		투여		
瘙痒 感	++	++	++	+±	+	+	-

2. 證例 2

1) 환 자: 김은O, 여자, 1977년 10월 1일생, 기혼

2) 주소증: 복부의 變色, 심한 소양증으로 인한 불면

3) 산과력: 0-0-0-0

4) 증상

임신 7개월에 발생한 심한 소양감. 병원에서 임신성 피부증이라 진단 받고 피부과를 가니 혈관 확장 때문이라 함. 약을 발랐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음. 밤에 더 많이 가려움. 가려움이 점점 더 심해져서 현재는 밤에 잠을 거의 못 잠. 처음에 배에서 시작하여 손으로까지 번짐.

특히 배 부분은 거의 검붉은색을 띠 정도로 피부색이 경계가 뚜렷하게 변함.

5) 진단

(1) 피부색, 체격: 면색은 검음. 체격은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함.

(내원시 키 156m, 체중 55.6kg)

(2) 消化: 잘됨.

(3) 食慾: 좋음.

(4) 大便: 원래는 便秘였으나 지금은 불편하지 않음.

(5) 小便: 정상

(6) 口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심. 주로 미지근한 물을 먹음.

(7) 寒熱: 추위 더위를 다 많이 탐.

(8) 汗: 남들에 비해 잘 안 흘리는 편.

(9) 舌診: 설색 赤. 치흔 있음. 백태

(10) 睡眠: 원래는 잘 잤는데 지금은 가려워서 거의 못 잠.

6) 투여처방

消風散(生地黃 증량) 加 金銀花 1錢, 芍藥 1錢, 黃芩 1.5錢, 蘇葉 1錢 薄荷 0.5錢

7) 치료경과

기간	10/28	11/6	11/11	11/17	11/25	12/2	12/10
韓藥 投與	투여		투여		투여		
瘙痒 感	+++	++	+±	+	-	-	-

IV. 考 察

임신기간 동안 임신부의 신체는 내분비, 대사, 면역 등 여러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피부의 변화도 흔히 나타난다. 대부분은 생리적인 경우이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병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들이 임신시에만 나타나거나 임신시 더 자주 나타나는 경우를 임신성 피부증(dermatoses gravidarum)이라 하고 임신으로 인한 내분비 실조를 주원인으로 본다. 1998년에 Shornick은 소양증을 동반하는 Cholestasis, 임신 소양성 두드러기성 구진과 반진, 임신성 헤르페스 이 3가지만 임신시 독특하게 나타나는 증상³⁾이라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신성 소양증, 임신 소양성 두드러기성 구진과 반점, 임신 구진성 발진, 임신헤르페스, 포진상 농가진을 임신성 피부증의 범주로 본다. 이에 대한 치료법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고용량 투여나 병합요법²⁾, 항히스타민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크림³⁾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는데, 종종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삼가고 자연 관해를 기다리는 경우 많다⁴⁾.

瘙痒이란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유쾌한 감각으로 단순히 따끔따끔하거나 의주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못 참을 정도로 심하게 가려운 경우를 말하며⁵⁾, 「女科百

問」⁶⁾에서는 “身癢痒者 是體虛受風 風入腠理與血氣相搏而俱往來在皮膚之間 邪氣散而不能衝擊爲痛 故但癢痒也”하여 風, 濕, 熱, 蟲의 邪氣가 피부와 근육 표면을 침입하여 피부와 근육간 氣血이 不和하여 발생하거나 血虛하여 生風化燥하고 피부와 근육을 濡養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본다¹⁾.

한의학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피부소양증을 妊娠身痒, 妊娠癢痒 이라 하고 태아에게 손상이 없는 경우로 정의 하며¹⁾, 「雜病廣要」⁶⁾에서는 “婦人血氣 或痛身痒 或頭面痒 如蟲行皮中 緣月水來時 爲風所吹”이라 하였다.

妊娠身痒의 발병기전은 대부분 평소에 血虛한데, 임신으로 陰血이 모여 養胎하므로 血虛가 더욱 심하고 血虛로 生風化燥하고 肌膚를 濡養하지 못하거나, 임신 후 衝任이 不調한데 衝은 血海이고 任은 胞胎를 主하므로 衝任이 不調하면 營衛가 不充하여 肌膚가 失養하여 발생하거나 평소에 陽盛하여 血分에 纏熱한데 임신으로 血이 모여 養胎하므로 陰血이 부족하고 風熱의 邪氣가 허약함을 틈타 肌表를 침입하여 營血을 손상시키고 營衛가 不和하여 발생하는 경우, 風熱의 邪氣가 久變하여 肌膚에 울체하면 外에서 透達하지 못하고 內에서 疏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¹⁾.

임신 중 피부질환에 관한 연구에는 권⁷⁾ 등의 임신중 생리적 피부변화에 대한 연구, 정⁸⁾ 등의 임신성 유천포창 양상의 임신피부증 환자 치험례, 김⁹⁾ 등의 임신 중 급성기 피부염 환자에 대한 wet dressing 요법 치험례, 이¹⁰⁾ 등의 혈허풍열형으로 변증된 임신신양 환자의 치험례, 김¹¹⁾ 등의 임신 중 피부질환에 대한 치험례 등이 있다.

消風散은 「外科正宗」¹²⁾ 에 수재된 처방으로 當歸, 生地黃, 防風, 蟬蛻, 知母, 苦參, 胡麻, 荊芥, 蒼朮, 牛蒡子, 石膏, 木通, 甘草로 구성되어 있으며 風毒의 邪氣가 인체에 침입하여 濕熱과 相搏하게 되어서 안으로는 疏泄이 되지 않고 밖으로는 透達이 되지 않아 肌膚와 腠理의 사이에 鬱結되어 발생하는 皮膚發疹, 癢痒, 疹水流溢 등의 증상을 치료하며¹³⁾, 임상에서는 胎熱, 乾癬,

두드러기, 감각이상, 비듬과 같은 피부질환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¹⁴⁾.

처방 중에 荊芥, 防風, 牛蒡子, 蟬蛻 등은 腠理를 開發하여 表에 있는 風邪를 透解하게 하고, 蒼朮로 散風祛濕하고 苦參으로 清熱燥濕하며, 木通으로 濕熱을 滲利하게 하고 石膏, 知母 등이 清熱瀉火 작용을, 當歸는 和營和血, 生地黃은 清熱涼血, 胡麻는 養血潤燥하는 작용을 한다¹³⁾.

본 처방에서는 消風散의 基本方에 金銀花, 芍藥, 黃芩, 蘇葉, 薄荷를 가하였는데 金銀花는 清熱解毒, 涼散風熱하고 薄荷는 宣散風熱, 透疹하는 작용이 있어 둘을 가하여 효과를 증강 시켰고, 芍藥은 補血養血하고 斂陰止痛하는 작용이 있고, 黃芩은 清熱瀉火하고 安胎하는 효능이 있으며, 蘇葉은 行氣安胎, 解表하는 작용이 있어 이 약물들을 가하여, 清熱, 涼血, 安胎, 止痒 작용을 증강시켜 투여하였다. 환자들에게 최소한 1주에 2번은 내원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화로 상담을 하여 소양감과 발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증례 1의 환자는 32살의 기혼여성인데 첫째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로 둘째를 임신하고 8개월째에 발생한 심한 소양감과 발진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첫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므로 둘째도 제왕절개로 출산할 계획이었는데 다니던 병원에서 발진이 완치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부과를 갔으나 치료를 할 수 없다하여 한방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

소양감은 오전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였고 저녁에서 새벽까지 제일 심하다고 하였다. 동시에 피부에 좁쌀 같은 작은 발진이 생기는데 발진이 생기는 부위와 가려운 부위가 일치하였다. 그리고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에 붉게 자국이 생기면서 가려운 부위가 점점 번진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배에서 시작하여 내원시에는 등과 팔까지 번진 상태였다. 상기처방을 투여 후 저녁에서 새벽까지의 소양감이 줄었고 발진이 생기는 부위도 감소하였으며 긁은 부위가 붉게 되는 증상이 덜해져서 환자의 요청으로 2차 투여를 하였고 3차 투여 후에는 소양감도

사라지고 발진도 없어져서 병원에 다시 가본 결과 정상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진단 받았다. 이후에도 출산일까지 재발이 없었으며 태어난 아기에게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증례2의 환자는 32살의 여성 환자로 가정주부이며 초임부로 평소에도 얼굴이 잘 빨개지거나 열이 오르는 증상이 종종 있었는데 임신 7개월에 발생한 심한 소양감과 소양감으로 인한 불면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임신성 피부증이라 진단을 받고 피부과를 가니 혈관 확장 때문이라 하여 처방받은 약을 발랐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서 한방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 증상은 낮에 비해 밤에 더 가려우며 특징적으로 복부가 거의 검붉은색을 띠 정도로 경계가 뚜렷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가려움은 처음에 복부에서 시작하여 내원시에는 손바닥 발바닥까지 가려운 상태였으며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여 어디에 닿기만 해도 심하게 긁으며 가려움증으로 인해 밤에 거의 잠을 못 잔다고 하였다.

역시 妊娠身痒으로 판단하여 상기처방을 투여하였는데 증례 2의 환자의 경우는 소양감이 너무 심하고 잠을 제대로 못잔지 2주 가까이 된 상태인데다 열증상과 혈허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黃芩과 生地黃을 증량하여 투여하였다. 1차 투여 후 소양감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복부의 색도 열어졌으며 2차 투여 후에는 소양감이 거의 소실되었으나 환자가 재발을 두려워하여 3차 투여도 시행하였다. 이후 출산 때까지 재발이 없었으며 출생한 아이에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V. 結 論

본 증례는 妊娠身痒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消風散加味方을 투여하여 치료후 모두 증상이 소실되었으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욱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많은 임상보고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한의부인과학 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 (하). 서울, 정담, p97, 248, 2002.
2.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출판사, pp315-6, 1995.
3. F. Gary Cunningham et al. WILLIAMS OBSTETRICS. twenty seco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Medical Publishing Division, pp1251-5, 2005.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전신질환의 피부소견. 서울, 고려의학, pp167-170, 1997.
5. 지선영. 동의피부과학. 서울, 일중사. p36, 1996.
6. 라원개. 중의부과학. 서울, 의성당, p152, 2003.
7. 권오상 등. 임신중의 생리적 피부 변화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피부과학회, 35(5):902-8, 1997.
8. 정선형 등. 임신성 유천포창 양상의 임신 피부증 환자 치험 1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5(3):172-80, 2002.
9. 김은숙 등. 임신 중 급성기 피부염 환자 1례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8(4):195-202, 2005.
10. 이수정 등. 혈허풍열형으로 변증된 임신신양 환자의 소풍산가미 치험 4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3):229-37, 2002.
11. 김경혜 등. 임신 중 피부질환에 대한 치험 2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258-267, 2007.
12. 진실공. 외과정중.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pp30-34, 1989.
13. 방제학교수공저. 방제학. 서울, 영임사, pp439-440, 1999.
14. 이종대. 새로 보는 방약합편. 경기도 안양시, 단샘, pp596-602, 2006.